

◆며느리권씨 일전 13-2

고종황제 5대조 의안군 이혁(李赫)

군부인郡夫人 안동 권씨 (추밀공파 26세, 덕광공계, 權德光의 장녀)

군부인 권씨

가계도

10세 권수평(權守平, 추밀공파시조)-11세 권위(權威, 충현공)-12세 권단(權胆, 문정공)-13세 권보(權溥, 문정공)-14세 권재(權載, 왕후, 정현공)-15세 권중귀(權重貴, 왕중귀, 밀직공, 공민왕시, 원순제 동서)-16세 권숙(權肅, 부윤공, 여발선조 복성, 판서급)-17세 권복(權復, 화산부원군)-18세 권온(權溫, 좌왕공, 5급, 효행)-19세 권옥(權旭, 평산부사, 기로소, 72살)-20세 권진(權振, 참봉공 사옹원 9품, 효행)-21세 권상(權常, 남강공, 효행, 참봉, 80살, 영의정추증)-22세 권희(權憲, 시진공, 78살, 판서급, 충신지려)-23세 권익중(權益中, 원종공신, 추증이조참판, 89살)-24세 권대유(權大有, 포천현감, 43살)-25세 권덕광(權德廣, 군수, 6형제 중 3남, 77살)-26세 군부인 권씨(1남 3녀 중 장녀, 78살)

군부인 권씨에 대한 행장은 보이지 않으나 그녀의 가계인 추밀공파를 살펴보면 13세 권보의 당대 구봉군 부터 해서 16세 권숙이 여발선조에 왕씨에 서 권군의 도움으로 복성하고 구명하면서부터 조금 나아진다. 그러나 여말의 그 최상급 권력그룹은 아니고 그냥 중상류급 관료와 양반으로 지위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부친 권덕광(77)은 군수(지방행정고시 합격), 조부 권대유(43)는 포천현감, 증조부 권익중은 참판급(89), 증조부 권희(판서급, 78), 고조부 권상(참봉, 80), 5대조 권진(6대조 권옥(기로소, 72), 7대조 권옥(부사, 72), 8대조 권온(좌왕공) 등을 볼 때 먼저 그 당시 기준으로 장수집안이다. 본인도 78살이지만 대략 70대 중반이다. 지금으로 보면 100수에 가까운 수를 누렸다. 그 연유는 먼저 효행과 충신으로 이름이 난 분이 절반이고 양육한 모함을 받고도 견딘 분이 더 있다. 즉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분나(安分樂道) 한 낙천적 스타일임을 알 수가 있다.

부친 권덕광의 과거합격 자료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부친은 권대유(權大有, 通訓大夫, 行振威縣令)이고 6형제 중 셋째로 25세에 생원 3등급으로 맨행과

같이 합격하였다.

[생원] 효종(孝宗) 2년(165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59위(89/100), 자(字) 자승(子崇), 생년 정묘(丁卯) 1627년 (인조 5), 합격연령 25세, 본관 안동(安東), 거주지 한성([京]), 선발인원 100명 [一等 5·二等 25·三等 70], 전적 유학(幼學, 학생), 연변(聯璧[兄弟同榜], 동시합격) : 弟 權德衍, 부모 두분 다 생존. 자시하(慈侍下), 弟 : 權덕연(權德衍)[進], 권덕휘(權德徽)[生], 弟 : 權덕연(權德養), 권덕명(權德明), 권덕윤(權德潤)[生]

즉, 당시 왕족이라 하지만 평범한 집안인 이혁과 걸맞는 수수한 정도이다. 다만 이혁이 여라번 귀양을 가고 하니 권씨부인도 편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황제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근래에 주목을 받은 것은 묘지 이장 과정에서 나온 방대한 복식유물로 또 유명하다. 이를 잠깐 보자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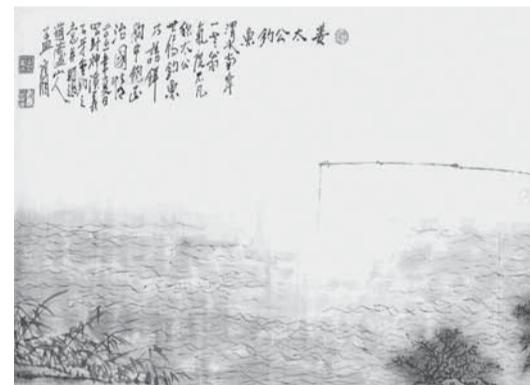
의원군 이혁일가 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제 276-1호)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은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의원군 일가 묘 이장 과정에서 능창대군(綾昌大君, 1599~1615) 묘, 의원군(義原君, 1611~1722)



출토유물 중 권씨부인의 당의(唐衣), 무늬

부부 합장묘, 의원군의 5대손인 이연응(李沇應, 1818~1879)의 묘에서 수습된 130종 181점의 복식(服飾)·서간(書簡)·지석(誌石), 죽은 사람의 행적을



동호(東湖) 권상목 원장 '시전정해(詩傳精解)' 출간



의 공녀과 그 당위성을 읊은 종교적 정치성이 강한 시로써 궁중에 울려 퍼지는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의례에 맞춰 읊어 나가는 대서사시를 말한다.

또한 동호 권상목 원장은 구순을 맞아 생일날 아침에 떠오르는 소감을 한시로 썼다. 구순생조유감(九旬生朝有感)이다. 구순을 맞아 생의 자취를 뒤돌아보니 흐와 우로 가법을 삼고, 충과 인을 대대로 물려받아 부지런히 후학들을 깨우치고 뛰어난 선조들을 본받고 계승하려 했다고. 그 꿈같은 세월 동안 그랬구나 하며 독백하듯이 고백한다. 그러면서 덕을 숭상하는 우리 문중은 길이 온전할 것이라고 술회한다. 고향 예안은 구순이 되도록 그저 무탈하기만 한다. 한시에 맞춰 시를 짓고 누군가 원운(原韻)을 차운(次韻)하여 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한시에 겹겹과 운치와 세월에 대한 여운이 깃들어 있다. 첫 소절 어느덧의 '여언'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영원'을 지향하며 문중이 길이 온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시(詩)의 내용은 풍(風)과 아(雅)와 송(頌)으로 엮여져 있다. 풍(風)은 각 지방의 민간가요로써 지방의 민요, 풍습, 생활을 토대로 한 사회적 서정적인 시를 말하며, 아(雅)는 연향이나 조회 때 쓰인 조정의 음악으로써 군주, 제후, 사대부 등 왕족과 귀족들의 외교와 의식, 연회, 전쟁, 수령 등을 읊은 사회적인 시를 말하며, 송(頌)은 종묘에서 조상의 공녀를 찬양하는 송가(頌歌)로써 주나라를 건국한 선조들을 찬양하는 송가(頌歌)로써 주나라를 건국한 선조들을

적은 돌) 등의 유물이다. 1999년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출토유물들은 피장자(被裝者)의 인적 사항과 생몰(生沒) 연대가 확실한 왕실 종친의 남녀 복식과 후손의 출토복식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밸류사례도 매우 드물어 왕실 복식과 장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능창대군의 망건(網巾), 의원군의 단령(團領)·철리(帖裏)·답호(搭護), 의원군 부인 안동권씨의 원삼(圓衫)·당의(唐衣), 이연응의 망고자(麻掛子) 등 복식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권씨부인의 신발(온혜)

권씨부인의 남편 의원군 이혁이 꿈에 생부인 복녕궁 앞에서 지었다는 시, 그도 양자로 와서 생부를 그리워 했을 것이다. 백아는 거문고 명인인데 친구 종자가 그 음을 알아주었으니 이를 지음(知音: 진정한 친우)이라 하는 데 그가 죽으니 그는 거문고 줄을 끊고 연주하지 않으니 이를 백아절현(伯牙絕絃)이라 한다. 수작자는 강태공 여상을 의미하고 '창방곡'은 '연하고질(煙癉痼疾) 병이로다. 상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이라는 조선의 가사로 자연속에 있음이니 이는 영의정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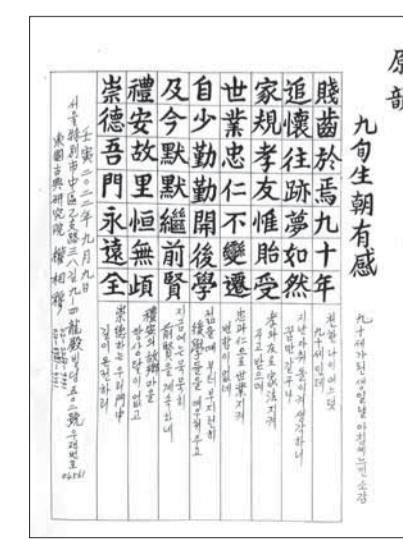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탈 것 없으니
음악을 알아듣는 종자기(鍾子期) 없네
곧은 바늘 낚싯대 드리운 사람
부질없이 창랑곡(滄浪曲)만 부르는구나

글 권오철 기자



구순생조유감

賤齒於焉九十年 친치어언구십년
천한 나이 어느덧 구십세인데
追懷往跡夢如然 추회왕적몽여연
지난 자취를 돌아켜 생각하니 꿈만 같구나
家規孝友惟胎受 가규효우유이수
효와 우로 가법 지켜 주고 받으며
世業忠仁不變遷 세업충인불변천
충과 인을 세업 지켜 변함이 없네
自少勤勸開後學 자소근개후학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후학을 깨우쳐주고
及今默默繼前賢 급금목목계전현
지금에는 묵묵히 전현을 계속하네
禮安故里恒無頗 예안고리향무탈
예안의 고향마을 항상 탈이 없고
崇德吾門永遠全 승덕오문영원전
승덕하는 우리 문중 길이 온전하리



권행완 편집국장

문충공 양촌 권근 추향제 봉행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6세, 1352~1409)과 문경공(文景公) 지재(止齋) 권제(權踶, 17세, 1387~1445), 안숙공(安肅公) 권준(權踰, 17세, 1405~1459), 익평공(翼平公) 소한당(所閑堂) 권람(權撣, 18세, 1416~1465) 등에 대한 추향제가 10월 23일(일) 11시 충청북도 음성군 생국면 방죽리(능안로 377-15)에 위치한 양촌 권근 삼대 묘소(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에서 권오돈 문충공 종중 회장 등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특히 권오섭 문충공 종중 사무국장의 아들인 권순율(8세)·권이(9세)·권우(10세) 등 3세대가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권오섭 대축의 출기에 따라 절하고 있는 권순율 군

결권(傑, 19세)의 묘소에서, 안숙공의 둘째 아들 마전공(麻田公, 권염권念, 17세)의 묘소에서 각각 향사를 봉행했다. 추향제를 마친 일행은 양촌기념관에 마련된 점심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

묘역은 1만 8000여 평 정도이다. 묘역 아래쪽에는 묘자리에 얹힌 이야기를 간직한 커다란 저수지가 위치한다. 묘소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양촌기념관이 있고, 중앙에는 천상분야(天象分野列次之圖)가 그려진 석비(石碑)와 양촌의 상대별곡(霜臺別曲)이 새겨진 석비(詩碑)가 들어서 있고, 그 뒤편으로 문충공과 안숙공과의 부조묘가 나란히 좌정했다.

구릉에는 양촌 권근을 비롯한 3대 묘소가 자리하고, 평지에는 문충공과 문경공, 익평공 세 분의 신도비가 세워진 3채의 비각이 서 있다. 권근의 신도비는 1447년(세종 29)에 세웠는데 비문은 목은 이색의 증손으로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개(李培, 1417~1456)가 짓고 양촌의 외손자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썼으며, 권람의 신도비는 보하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 1417~1485)가 글을 짓고 안숙공 권반(權攀)이 글씨를 썼다. 문경공 권제의 신도비는 1993년에 서아 18대손 권호호(權虎虎)가 글을 짓고 김영기(金榮基)씨가 글씨를 써서 세웠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 능우회 10월 월례회 개최



당부했다.

권오감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8월 27일 암산유원지에서 능공회 주최 복회(伏會) 때 찬금 5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 권운성 회원이 통장으로 연임되어 축하하는 뜻에서 꽃바구니를 전달할 계획이 있으나 본인이 적극 사양하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대신 박수로 연임을 축하하자"고 말해 힘찬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능공회원이었던 권오을(전 국회의원), 권영복(한국수자원개발공사 부장) 두 사람이 연령 제한으로 능우회에 입회할 계획이었으나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격월제로 두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 회원들은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답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현재 능우회 회원은 31명이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법준 대종회 이사 손주 7명으로 다복한 가정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0.81명이던 것이 이제는 0.7로 더 낮아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들이 제기된다.

권법준 대종회 이사는 22년에 동안 약진군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이제는 모두 출가하여 친손자와 외손자가 7명이다. 권법준 이사 부부와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등 모두 15명의 가족이 되었다. 권법준 이사는 산아율 급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범사회적으로 출산율 운동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각 가정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행복한 웃음소리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